

## ‘윤장현 구하기’ 안철수·이낙연 총출동 강운태·이용섭 ‘단일화’ 막판 기세 싸움

### ☎ 선택 6·4 지방선거 D-9

#### 광주시장 선거 총력 유세전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공원과 대형마트를 집중 공략하며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이낙연 전남지사까지 동원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다.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는 25일부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고 지지세력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 ‘빅3’ 대결은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총공세를 등에 업은 윤 후보와 강·이 후보 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안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일에 맞춰 광주를 방문한지 6일만인 지난 24일 또 다시 광주를 찾아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을 벌였다. 안 대표는 이날 광주 광천터미널 및 유스퀘어, 풍암저수지, 수원저수지 롯데마트와 호수공원 등을 돌며 ‘윤장현 후보 구하기’에 나섰다.

안 대표는 “윤장현 후보는 광주의 시민사회를 시민적인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오셨고, 그것을 광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들께서 윤장현을 선택한다면 광주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여 정권교체로 보담해 드리겠다”고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안 대표는 한 두차례 더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도 윤 후보 지원에 가세했다. 윤 후보와 이 후보는 25일 광주 YMCA에서 ‘민선 6기 시·도 공동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윤 후보의 지지도를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중앙당 등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서구청장·북구청장 ▶4면  
완도군수·해남군수 ▶12면



“광주에 安風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장미공원 앞에서 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영선 원내대표와 권노갑 삼일교문 등 당 지도부들도 이번주중 이따라 광주를 방문하고, 안 대표도 한 두차례 더 광주를 방문해 윤 후보 지원에 ‘울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하고 25~26일 이들 간 여론조사에 들어갔으며, 막판 세싸움을 치열하게 펼쳤다.

강 후보는 광주 도심공원과 무등산 중심사 입구, 광천동 유스퀘어, 재래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돌며 재선에 성공해

중단됐을 광주발전을 이루겠다고 전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앞서 ‘48시간 철야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등 배수진을 치고 유세차량을 이용해 광주 도심 곳곳을 누비는 민심투어를 벌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고 자신의 지지를 당부했다. 두 후보는 또 자신이 단일후보 적격자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소속 단일후보 결과가 발표

되는 27일째부터 투표 당일 이전까지 안철수 대표 등의 지원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 효과를 얻은 무소속 단일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와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 노동당 이병훈 후보, 무소속 이병완 후보도 이날 무등산 입구와 광천터미널, 재래시장, 기업체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유권자 수까지 총청에 역전당했다

6·4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 수가 호남보다 총청이 2만4000여명이 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과 총청 간 인구 역전에 이어, 유권자 수가 뒤바뀐 상태에서 첫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6·4지방선거의 유권자수는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419만1100명, 충북·충남·대전 등 총

청권 421만5204명 등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의 80.4%인 총 4129만622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 수 3885만1159명보다 244만5069명(6.3%) 증가한 것으로, 성별로는 남자 2044만6197명, 여자가 2085만3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113만8418명·

### 6·4지방선거 유권자 수 호남 419만 < 총청 421만

전남 154만9440명·전북 150만3242명이며, 충북 126만1119명·충남 164만4554명·대전 120만7972명·세종 10만1559명이다. 총청권의 유권자가 호남보다 2만4104명이 많다. 총청권 유권자 수가 호남보다 많은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이번 6·4지방선거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호남을 위한 자리는 없다

### 박근혜 정부 입법·사법·행정 수장 ‘PK독주 시대’

#### 국회의장에 정의화 내정 건국이래 최악 지역편중 野 “호남 죽이기 중단을”

#### ■ 입법·사법·행정부 수장 ‘PK 씹쓸이’

직책	이름	출신지
국무총리(후보자)	안대희	경남 함안
국회의장(내정자)	정의화	경남 창원
대법원장	양승태	부산
검찰총장	김진태	경남 사천
감사원장	황찬현	경남 마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경남 거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함안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며 2기 내각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특정지역 편중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가 권력의 세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부산·경남(PK)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역대 정권 이래 가장 심각한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향은 부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이고, 지난 22일 행정부 수장으로 지명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함안이다. 여기에 다음날인 23에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경남 창원 출신인 정의화 의원이 내정됐다. 공교롭게도 여당 육 국회부의장 후보도 울산 출신인 정갑윤 의원이 됐다.

더욱이 경남 거제가 고향이자 여전히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PK가 현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건국 66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현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편중인사의 근원을 김기춘 실장에게서 찾는 분위기가 있다.

지난 1992년 말 대선 당시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조장한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인 김 실장은 현재 공석 중인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을 비롯해

전면 개각 및 참모진 개편에 대비한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편중 우려가 더욱 확산하는 것은 김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후 임명된 고위직 인사의 대부분이 PK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홍경식 민정수석(경남 마산), 김수민 국정원 2차장(부산), 안대희 총리 후보자(경남 함안), 박홍렬 경호실장(부산) 등 권력의 핵심인 자리에는 예외없이 PK 출신으로 채워졌다. 5대 사정기관인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고향도 경남 진주다.

반면, 권력의 핵심 자리에서 호남 출신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 5대 권력기관 장과 2인자인 차장, 더 내려가 1급 핵심 자리에도 호남 출신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의 경우도 김덕중 청장만 충청 출신일 뿐 1급 4명이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차기 국세청장은 이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부산·경남 출신 인물로 채운 것도 모자라 이번에 공안통인 안대희씨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박근혜 정권은 ‘호남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타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0일째  
25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교육, 강합니다!  
정진보교육감  
장휘국!

# 역시 장휘국! 부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60년 묵은 귀중한 교육비리, 뿌리째 도려내고 있습니다.  
인성에서 실력까지, 광주교육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자부심.  
교육감은 입시학원장이 아니라는 당신의 상식이 광주교육을 지키고 있습니다.

KBS MBC SBS 공동조사 지지도

## 36.3% 장휘국 1위

장휘국	양형일	김왕복	윤봉근	김영수	모름/무응답
36.3%	18.6%	7.6%	6.2%	5.5%	25.8%

▲ 공부에 자선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어 사랑을 전했던 선생님 장휘국. 학교서 29년에서 교육감까지, 장휘국은 언제나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80 송강빌딩 7층 전화 062-524-1029 팩스 062-524-6487 홈페이지 www.eduhg.kr 블로그 blog.daum.net/janggam0604